

KT

오후 5:35

52%

< 메모



"제가 한 잔의 룰루랄라 라는 곳에서 공연하는데, 그날같이 공연하는 건 어때요?" 12년도 홍대 앞 놀이터 프리마켓에서 공연을 하고 나오는 길에 만난 삼군이 나에게 물었다. "거기는 엄청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 공연하는 곳 아닌가요?" 나는 쫄려서 그렇게 말했지만 너무나 공연하고 싶었던 장소이다. 멋진 뮤지션이자 친구인 삼군 덕분에 인맥으로 룰루랄라에서 처음 공연을 하게 되는구나. 감지덕지. 나는 음반도 음원도 없는 버스킹 뮤지션이었다. 그날 공연을 엄청 잘해버려야지. 또 나를 부르고 싶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룰루랄라에 갔다. 담배를 피우며 만화책을 읽는 사람들과 멋부린 사람들이 몇 앉아있었다. 아 이게 홍대 문화라는 거구나... 나는 창가 자리에 짐을 두고 주문을 하러 카운터에 갔다.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아마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혹은 오늘 매우 바빠서 힘들거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 뭐 어때 공연만 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룰루랄라의 첫인상이다. 룰루랄라는 19년 초에 문을 닫는다. 약 11년 정도 영업했던 카페 겸 펍 겸 음식점 겸 공연장 겸 뮤지션들의 사랑방. 나에게도 가끔은

미팅룸. 오랫동안 아트마이드였던 곳. 나의 공연에



KT

오후 5:35

52%

< 메모



"제가 한 잔의 룰루랄라 라는 곳에서 공연하는데, 그날같이 공연하는 건 어때요?" 12년도 홍대 앞 놀이터 프리마켓에서 공연을 하고 나오는 길에 만난 삼군이 나에게 물었다. "거기는 엄청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 공연하는 곳 아닌가요?" 나는 쫄려서 그렇게 말했지만 너무나 공연하고 싶었던 장소이다. 멋진 뮤지션이자 친구인 삼군 덕분에 인맥으로 룰루랄라에서 처음 공연을 하게 되는구나. 감지덕지. 나는 음반도 음원도 없는 버스킹 뮤지션이었다. 그날 공연을 엄청 잘해버려야지. 또 나를 부르고 싶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룰루랄라에 갔다. 담배를 피우며 만화책을 읽는 사람들과 멋부린 사람들이 몇 앉아있었다. 아 이게 홍대 문화라는 거구나... 나는 창가 자리에 짐을 두고 주문을 하러 카운터에 갔다.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아마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혹은 오늘 매우 바빠서 힘들거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 뭐 어때 공연만 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룰루랄라의 첫인상이다. 룰루랄라는 19년 초에 문을 닫는다. 약 11년 정도 영업했던 카페 겸 펍 겸 음식점 겸 공연장 겸 뮤지션들의 사랑방. 나에게서는 가끔은



미팅룸. 오랫동안 아르바이트했던 곳. 나의 공연에



KT

오후 5:35

52%

< 메모



공연이다. 나도 공연을 하게 되었다. 룰루랄라 5주년 기념 컴필레이션에 나의 노래 '접속'을 싣게 되고 김해원 씨를 만나 앨범을 내고 나의 솔로 앨범을 2장, 라이브 앨범을 1장 내는 동안 나는 룰루랄라에 있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데모 음원을 듣고 믹스 마스터를 모니터하고 쇼케이스를 하고 김사월 쇼를 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울고 싶진 않다. 그저 좀 짜증을 내고 싶었다. 사라지지 말라고 부탁 비슷한 응석을 부리고 싶다. 그날은 내가 발표한 모든 곡과 미발표 곡 데모들을 모아서 2시간 넘게 노래만 불렀다. "제 노래가 끝나지 않으면 룰루랄라도 끝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나는 아프면 그만이고 괴로우면 그만이다. 사장님과 스텝들보다 더 아플까. 그러나 앞으로의 나 같은 사람들은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뮤지션 친구를 사귀고 공연을 하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 고통스럽다. 또 한 공간과 사람들이 사라지고 세대가 흐른다. 독립적인 창작을 하는 이들과 향유자가 갈 곳이 이렇게 한 곳 사라진다. 우리는 어디서 다

시 만나고 사랑하고 창작을 하게 될까.



젠트리피케이션

제목은 임의로 붙여봄

예술 바닥도 자립음악생산조합인가 하는 곳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더이다. 제작년엔 궁중죽발이라는 곳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주제로 연대한 바 있다.

- dc official App